

## 한국건강관리협회 새해 총 예산 288억 여원 확정

- 1998년도 정기대의원총회서 임기 만료된 조한익·조승렬 감사 유임 -



▲ '98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광경과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임한중 회장(원 안)



▲ 협회 유관인사 감사장 수여



▲ '97년도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조한익 감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1월 27일, 199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서교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건협은 새해의 총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9% 정도 감소된 288억 여원으로, 건강관리사업 목표186만명, 기타 보건교육·조사연구 사업 목표 등 새해의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또 임기가 만료된 감사 선출도 있었는데, 서울의대 조한익 교수와 성균관대의대 조승렬 감사를 유임키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난 1년간 협회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공이 큰 서울 강동교육청 김일성 계장, 동아일보 이성주 기자, 후생신보 서찬덕 기자, 고려의대 정규병 교수 등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유관기관 인사에 대한 회장 감사장 수여와, 협회 직원 중 30년 장기근속자(이희봉 국장 외 1명), 20년 장기근속자(이우광 대구지부 사무국장 외 7명), 10년 장기근속자(박건교 경남지부 건강증진 1과장 외 6명)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한편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임한중 회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올해 한해 동안도 직원들의 합심 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국 지부의 검진시설을 내원자 편의에 맞게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협회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새해에는 이와 같은 올해의 성과와 준비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등, 광주·전남지부 방문



고재유 광주광역시장과 김

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태흥 정무부시장이 지난 10월 14일과 15일에 각각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들은 협회 검진시설을 둘러 보고 광주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달

에서 발생하는 전파에 의해 각종 정밀 검진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검진 결과의 정밀도와 고객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정밀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내원자 관리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1월 2일~3일까지 이틀간 전국 시도지부의 검진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원자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강원지부, 춘천교육청 직원 대상 건강강좌

강원지부는 지난 10월 1일, 춘천 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청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 부산·울산·경남 지부, 직원 체육대회 함께 가저

부산·울산·경남 지부는 지난 11월 7일, 협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3개지부 합동 체육대회를 갖고 지부간 유대강화와 친목을 다졌다.

## 전북지부, 소외계층 무료 검진 등 실시



전북지부는 지난 10월, 자원봉사 대축제 참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수용시설인 전주 자립원을 방문하여 지체부자유자 및 정신박약아 등 170여 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소변·혈액·심전도·X선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했다.

전북지부는 또 전주기능대학이 주관한 농촌 기능 봉사활동에 참여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정읍시 태인면 사무소에서 농촌주민 13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21개 항목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한편 이 농촌봉사에는 전북지부 외에도 전자제품 3사와 귀뚜라미·경동보일러 등이 참

여하고 각 언론사가 후원했다.

## 광주·전남지부, 영호남인 화합을 위한 순회진료를 경남 삼천포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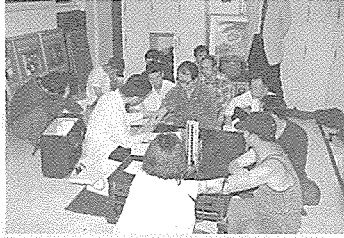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영호남인 화합을 위한 장애인 및 실직자 순회 진료를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가졌다.

이날 검진팀은 영호남 의료진 45명으로 구성되어 성인병 검진과 건강상담을 실시했는데, 모두 800여명의 장애인과 실직자가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장소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휴대폰

## 대전·충남지부, 대전광역시와 실직 노숙자 무료검진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10

월 30일, 대전광역시와 합동으로 실직 노숙자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은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소재 '나눔의 집'에서 실직 노숙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간기능·심전도·혈액질환·흉부 X선 검사 등을 실

시해 건강관리를 통해서나마 실의에 찬 이들을 위로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전·충남지부와 동구 보건소에서는 실직자들을 위한 무료 검진을 매월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인천지부, 보육원생 건강진단 실시



인천지부는 지난 10월 27일, 보라매 보육원과 향진원 원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인천지부는 이외에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 여러 종류의 건강검진을 계속 실시해 '음지를 감싸는 사랑의 검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충북지부, 농협물류센터서 무료검진 실시



충북지는 지난 10월 16일부

터 20일까지 5일간 농협 청주 물류센터가 개장된 상당구 용암동 물류센터에서 센터 이용 고객 7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 동안 이원중 충북도지사와 농협본부장이 건강검진 실시 장소를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다.

## 울산지부, 울산 KBS와 시민 건강강좌·무료건강검진



울산지부는 지난 11월 17일 협회 창립 34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울산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울산 KBS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각종 실업·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등 국민 모두가 건강관리에 소홀해져, 경제 뿐만 아니라 건강

마저 잃게 될 우려가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울산시민의 건강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기초·체성분·신장·심장·간장·소변·고지혈증·당뇨·간염·빈혈 검사와 의사상담을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 부산 동아의대 가정의학과 박주성 교수가 'IMF 시대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160여명의 울산시민이 무료 검진을 받았으며 300여명의 시민이 건강강좌를 들었다.

## 대전·충남지부 김태훈 과장, 기타 연주회 열어

대전·충남지부 김태훈 과장이 지난 10월 29일, 평송 학생수련원 대강당에서 고전 기타 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있었던 제 11회 고전 기타 합주단 연주회에서 김과장은 3백여명의 동호인과 시민들의 열광을 받으며 '라콤파르시다(La Cumparsita)' 등 20여 곡을 연주했다.